

# 인수위 없이 회장 오르는 최정우 “소리없이 강하다”



신성장사업 역량 키우기 집중  
27일 임시주총서 정식 임명



최정우 포스코 회장 내정자

연매출 60조원의 재계 6위 기업인 포스코의 미래를 이끌어 갈 최정우 회장 후보가 주주총회를 약 20일 앞둔 가운데 조용한 행보로 취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후보는 포스코의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데다 비서울대 출신의 재무통인 만큼, 내·외부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회사의 신성장 사업을 키우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최 회장의 취임에 대한 논란도 있지만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검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9일 재계에 따르면 포스코 차기 회장 후보로 선임된 최정우 포스코켄텍 사장은 27일 강남구 테헤란로 포스코센터에서 열릴 임시 주주총회에서 정식으로 포

스코 그룹 회장직에 오른다. 지난 6월 23일 최종 후보로 확정된 최 후보는 새 회장으로 취임하기 전까지 3주가 넘는 취임 준비 기간을 가졌다.

하지만 별도의 인수위원회를 조직하지 않을 방침이다. 다만 현재 본사가 있는 포항과 서울 사무실을 오가며 대신 해당 근무자를 통해 보고를 받는 식으로 일선에 관한 인수인계를 진행 중이다.

이 권오준 회장이 2014년 1월 공식

취임 전 인수위 성격의 ‘혁신 포스코 1.0’ 태스크포스(TF)를 띄우고 성대하게 취임을 준비했던 상황과는 상반된다.

최 후보가 입사 후 포스코 재무실장, 포스코건설 경영기획본부 경영전략실장, 대우인터내셔널(현 포스코대우) 기획재무본부장, 가치경영센터장 등 주요 요직을 맡아오며 따라 그룹이 돌아가는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는 게 관계자의 말이다.

이에 따라 최 후보가 취임 이후 철강 사업은 기존 체제 하에서 본연의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고 대신 리튬 등 소재·바이오 등 신성장 사업을 육성하는 등 차별화된 경영 전략을 보여줄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특히 최 후보가 직전까지 2차전지 소재 사업을 이끌고 있는 포스코켄텍을 이끌었던 만큼 신성장 사업 육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줄 전망이다. 포스코켄텍은 음극재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증설 작업에 돌입해 총 7개 설비를 구축했다. 오는 10월 8·9호기 증설이 완료되면 연산 2만

4000톤 체제를 갖춘다.

다만 일각에선 후보 선발 과정에서 정치권 등으로부터 여러 비판이 제기됐던 만큼, 개혁 의지를 보이는 차원의 인사를 단행할 가능성도 농후하다고 보고 있다. 27일 주총에서 사내이사 교체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주총일로부터 14일 전인 12일에는 관련 안건이 공시돼야 한다.

한편 최 회장 후보는 회장 선임 과정에서 자신을 둘러싸고 불거진 잡음도 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 포스코바로 세우기(포바세) 시민연대가 최 회장 후보를 횡령 방조, 배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정민우 포바세 시민연대 대표와 추혜선 정의당 국회의원은 9일 “포스코의 비리 사건 대부분에 최 후보가 깊숙이 개입돼 있지만 우선 수사가 비교적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사건만 추려 고발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최 회장 후보가 지난 10년 포스코 그룹 전체에서 이뤄진 많은 비리에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2008년 3월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금 채널로 유명했던

포스코건설 기획재무실장을 지냈고, 정준양 전 회장 시절 그룹 감사실장(정도경 영실장)을 하며 포스코의 자원의료·대규모 해외공사 등 무분별한 투자를 감시하지 않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권오준 회장 시절에는 시가 5000억원 상당의 포스코건설 송도사옥을 부영에 3000억원에 매각해 최소 2000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당시 최 내정자가 그룹 가치경영센터장, 즉 구 조본부장을 지내며 이해 불가능한 거래를 ‘구조조정’을 내세워 단행했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포스코가 껌데기만 남도록 만든 최 후보는 조속히 자진 사퇴하고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한다”면서 “그것만이 최 후보가 포스코에 끼친 해악에 대한 최소한의 사죄이고 포스코가 포피아의 손을 벗어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최 회장 후보가 자신을 둘러싼 잡음을 극복하기 위해선 포스코의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ooil.co.kr

## 현대로템 ‘지뢰제거용 전차’ 전투용 적합 판정

지뢰지대 극복·대전차 지뢰 제거 가능  
비무장지대·민간인통제구역에 활용



현대로템이 개발한 장애물개척전차가 차체 전면의 지뢰제거용 대형 쟁기를 활용해 지뢰 제거 시험을 하고 있다. /현대로템

비무장지대 및 민간인통제구역에 산재된 지뢰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장애물개척전차가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다.

현대로템은 자체 개발한 지뢰제거용 장애물 개척전차가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장애물 개척전차는 기계화 부대의 신속한 작전수행을 위해 지뢰를 비롯한 각종 장애물을 제거하고 달리는 임무를 맡는다.

현대로템은 2014년 11월 장애물 개척전차 체계개발 업체로 선정되고, 같은 해 12월 개발에 착수한 이래 약 3년 반 만에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했다. 이번 달로 예정된 규격화까지 마치면 체계개발이 모두 완료된다.

현대로템에 따르면 이번에 개발한 장애물 개척전차의 가장 큰 특징은 지뢰지대를 극복하는 능력이다. 차체 전면의 지뢰제거용 대형 쟁기를 지면에 박아 넣고 땅을 갈아엎어 묻혀있던 지뢰가 드러나

게 하는 방식으로 대인 및 대전차 지뢰를 제거할 수 있다.

자기감응지뢰 무능화 장비로 자기장을 발사해 차량 앞에 매설된 자기감응지뢰를 터뜨려 무력화하는 성능도 갖췄다.

차량 후미 좌우에는 안전지역 표시를 위한 포식막대 발사 기능을 탑재한 통로 표시장비를 1개씩 장착해 군 병력의 안전한 기동로를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장애물 개척전차는 지뢰지대 극복 능력을 바탕으로 약 86만여 발의 지뢰가 매설된 것으로 추정되는 비무장지대 및 민간인통제구역 내 지뢰제거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성운 기자

## SKT, 스마트 인테리어 시장 개척 나섰다

한국에코인테리어진흥협회와 MOU  
스마트홈 구축 가능... 시공경쟁력 ↑

### 스마트홈 기반 친환경 인테리어 업무협약



조영훈 SK텔레콤 홈사업 Unit장(왼쪽)이 9일 서울 T타워에서 노재근 사단법인 한국에코인테리어진흥협회장과 사업활성화 MOU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SKT

SK텔레콤이 9일 사단법인 한국에코인테리어진흥협회와 스마트홈 사업협력을 위한 MOU 체결식을 체결했다. SK텔레콤은 이를 계기로 스마트 인테리어 시장 개척에 나선다.

SK텔레콤은 이번 협약으로 국내 스마트홈 도입 이전에 지어진 주택시장에도 스마트홈 서비스를 확대할 방안을 마련했다. 한국에코인테리어진흥협회는 친환경 인테리어 진흥과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2016년 12월 설립된 단체이며 170여 개 인테리어 업체들이 회원사로 등록돼 있다.

SK텔레콤은 이번 제휴를 통해 기축 시장 내 연간 2000세대 이상의 스마트홈 인테리어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스마트홈 인테리어는 기존 주택의 인테리어 공사시 ▲스마트스위치 ▲플러그 ▲공기질 센서 ▲AI스피커 등의 스마트홈 제품을 함께 설치하는 공법이다.

노재근 한국에코인테리어진흥협회장은 “최근 스마트스위치나 플러그, 공기질 센서 등 스마트홈 제품 공급을 문의하는 회원사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제휴를

회원사들의 최첨단 스마트홈 구축이 가능해져 시공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인테리어 시장은 2000년 9조원에서 지난해 30조원으로 급성장했다. 또한 2020년 40조원 이상 규모로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 수가 전국 760만 가구로 전체의 46%를 차지하고 있다. 스마트홈 산업과 인테리어 시장의 결합은 스마트홈의 저변을 넓히고 더 큰 부가가치가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SK텔레콤은 한국에코인테리어진흥협회를 통해 회원사들에게 스마트홈 제품

을 일괄 공급하고 친환경 스마트홈 교육과 홍보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음 달에는 에코인테리어협회의 대전 소재 친환경 인테리어 체험관에 SK텔레콤의 스마트홈 체험 부스를 설치해 스마트홈을 활용한 친환경·에너지절감형 인테리어를 회원사와 고객들에게 알린다.

SK텔레콤은 신축 주택시장에서 국내 10대 건설사 가운데 5곳을 포함해 총 40여 개 주요 건설사와 제휴를 맺고 스마트홈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다. 현재 SK텔레콤의 스마트홈이 적용 완료된 아파트는 26개단지, 2만5000여 세대다. /안병도 기자 catchrod@

## 효성티앤씨, 기능성 신소재로 글로벌 공략

‘파리모드시티·인터필리에르’ 참가



효성티앤씨 직원이 고객에게 기능성 섬유가 적용된 원단을 설명하고 있다. /효성

효성티앤씨가 기능성 신소재로 글로벌 섬유 시장 공략에 나섰다. 효성티앤씨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파리모드시티·인터필리에르 2018’에 참가했다고 9일 밝혔다.

매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세계 최대 수영복, 란제리 및 섬유 소재 전시회다. 올해는 28개국에서 680개의 업체들이 참가했다.

패션업계에서는 합리적 가격, 효율적 소비에 대한 소비자의 니즈를 반영한 ‘크로스오버 패션’에 대한 관심이 확대됐다. 크로스오버 패션은 애슬레저룩과 같이 운동복처럼 편안하면서도 일상생활 패션으로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스타일로 기능, 디자인 등이 융합되는 다양한 시도들을 가리킨다.

효성티앤씨는 선명한 색상과 편안한 착용감을 제공하는 스판덱스 브랜드 ‘크레오라 컬러플러스’, 소독약품에 수영복의 탄력성이 떨어지는 현상을 최소화시켜 주는 스판덱스 브랜드 ‘크레오라 하이클로’, 땀냄새와 발냄새를 줄여주는 스판덱스 브랜드 ‘크레오라 프레쉬’를 선보였다. /김유진 기자

## LG 드럼세탁기, 英 소비자 잡지 ‘최고’ 평가

LG전자는 자사 드럼세탁기가 영국 소비자 잡지에서 최고 평가를 받았다고 8일 밝혔다. 최근 영국 유력 소비자잡지 ‘위치(Which)’는 자체 실시한 세탁기 성능평가에서 LG전자 드럼세탁기에 대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As good as it gets)”고 평가하며 최고 점수를 줬다.

LG전자가 지난 4월 현지에서 출시한 이 제품은 추천제품으로 선정된 세탁기 총 86종 가운데 가장 높은 평점인 89점을 얻었다. 평가단은 이 제품이 세탁과 행균, 탈수 같은 기본 성능은 물론 저소음과 사용 편의성까지 뛰어나다고 설명했다.



기존 성능평가 1위 제품도 LG 드럼세탁기였다. 이번 결과는 LG 전자 프리미엄 세탁기의 뛰어난 성능에 대해 영국 소비자들의 신뢰가 이어지고 있다는 증거다.

LG전자가 이처럼 세탁기에 차별화된 성능을 구현하며 고객들로부터 호평을 받는 것은 LG 세탁기의 핵심부품인 인버터 DD(다이렉트 드라이브) 모터 덕분이다.

DD모터는 모터와 세탁통을 직접 연결해 소음, 에너지 소모량을 획기적으로 줄인다. 세탁통과 모터를 연결하는 별도 부품이 필요 없어 제품이 구조적으로 단순해지기 때문에 내구성도 유리해 프리미엄 세탁기의 기준으로 자리잡았다. LG전자는 지난 1998년 세계 최초로 DD모터를 세탁기에 적용해서 상용화했다.

LG전자 H&A사업본부 리빙이플라이언스사업부장 류재철 부사장은 “인버터 DD모터, 스팀 등 LG 세탁기만의 차별화된 성능이 글로벌 시장에서 꾸준히 인정받고 있다”며 “차별화된 핵심기술을 기반으로 글로벌 프리미엄 세탁기 시장을 지속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병도 기자